종사·명덕 92명…“종단 발전 위해 용맹정진”

조계종 법계위, 11월 12일 품서식
종사 63명 · 명덕 29명 법계 품수
승랍 30년 이상…‘21조 가사’ 받아
대덕 69명 · 혜덕 36명도 법계 품수

임은호 · 김내영 기자


조계종 법계위원회가 거행한 법계품서식에서 종사 63명, 명덕 29명이 가사를 받고 “인천의 사표로 중생구제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조계종단의 종사·명덕 법계를 품수받은 스님들이 인천의 사표로서 위의를 갖추고 중생구제 원력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다.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법산 경일 대종사)는 11월 12일 오전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종사·명덕 법계 품서식’을 거행했다. 이날 법계를 받은 스님은 종사(비구) 63명, 명덕(비구니) 29명 등 총 92명으로 승납 30년 이상 종덕 법계를 수지한 스님들이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법계위원장 법산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에서 “세속을 등지고 삭발염의하며 세웠던 대오견성으로 불조와 시주의 은혜를 갚겠다는 초발심의 간절한 서원은 얼마나 성취했는지 각자가 자신의 수행을 냉철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면서 “출가할 때 간절한 서원대로 위로는 생사해탈의 본분사를 해결하고 아래로는 대자비심을 발해 고통받고 상처 입은 세간의 중생들을 교화하고 치유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부장 성화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모두가 교단의 중추로서 일념의 정진으로 사부대중에게 법익을 베풀 수 있는 교화의 덕목을 갖춘 종단 발전의 역군이 되주길 기대했다. 스님은 “종사, 명덕 법계는 종단의 지도자 역량을 갖춘 수행자임을 인정받는 공적인 자리이자, 출가해 지나온 시간에서 쌓은 다양한 수행과 경험을 종도들과 함께 나눠 불교의 수승함을 알리는 중요한 소임을 부여받는 자리”라면서 “높은 지위와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는 자리인 만큼, 삭발염의로 발심 출가할 당시의 초심을 다시금 세워 후학을 바르게 안내하고, 참된 자리를 사회에 전하는 한국불교의 기둥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37대 집행부는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하면서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와 현장에서 함께 하고 ‘종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존중받는 토대를 만들어가겠다”며 “불조의 혜명을 잇는 수행자의 든든한 의저처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품서식은 법계위원장 법산 대종사와 법계위원스님들이 증명한 가운데 봉행됐다. 법계위원장 법산 대종사는 법계증과 종사·명덕 법계를 상징하는 21조 가사를 내렸다. 품수자를 대표해 종사 법계증은 가섭 스님이, 명덕 법계증은 여학 스님이 받았다. 21조 가사는 설도 스님·태경 스님이 대표로 받았다.

법계증과 가사를 받은 스님들은 “불조 혜명을 바르게 잇고 화합과 수행으로써 종단 발전을 위해 용맹정진하겠다”면서 “인천의 사표로써의 위의를 항상 갖추고 중생구제의 원력에 더욱 힘쓰겠다. 부처님 가르침이 가장 위대하고 올바른 길임을 선포하며 시방삼계를 부처님의 도량으로 장엄하겠다”고 다짐했다.

법계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에 2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대덕(비구) 69명, 혜덕(비구니) 36명 등 총 152명 스님에 대한 법계 품서식도 함께 봉행했다. 법계증은 운묵 스님과 도연 스님이, 가사는 석두 스님과 돈오 스님이 대표로 받았다.

법계식에 앞서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수진 스님)는 11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불기2568(2024)년 2급 승가고시 수석합격자 시상식’을 열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운묵(비구)·도연(비구니) 스님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은 “여러분은 출가자로 20여 년을 보내면서 거짓과 진실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단계에 올랐다. 지금까지 어른스님의 그림자를 붙잡고 왔다면, 이젠 여러분이 후배들에게 진신의 그림자가 되어 줘야 할 때”라며 “후배들에게 참다운 수행자의 표상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5주년 상월결사 “부처님 법 전합시다” 다짐

11월 11일 위례 상월선원서
108배로 상월 정신 되새겨
조계사 등 100여 명 동참해



상월결사 창립 5주년을 기념하며 대중들은 위례 상월선원서 108배를 올리며 포교와 전법의지를 되새겼다.

“거룩하신 부처님,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길을 떠나라는 가르침을 큰 원력으로 삼겠습니다. 사부대중이 함께 매일매일 정진하면서 전법과 포교에 온 삶을 바치겠습니다.” (상월결사 108 원력문 中)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한국불교 중흥과 대학생 전법을 위해 시작한 ‘상월결사’ 창립 5주년을 기념하는 법석이 마련됐다. 이날 모인 100여 상월결사 대중들은 108배를 올리며 포교와 전법의 의지를 되새겼다.

상월결사(이사장 호산 스님)가 11월 11일 위례 상월선원에서 ‘상월결사 5주년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상월선원 천막결사 5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원적 1주기를 추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상월결사는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한국불교 중흥과 대학생 전법을 화두로 삼아 시작했다. 2019년 11월 11일, 동안거 동안 9명의 스님이 천막법당에서 정진한 ‘상월선원 천막결사’를 시작으로 생명 존중과 평화를 기원하는 ‘상월결사 인도순례’ ‘평화방생순례’ 등을 진행했다. 또한 “한국불교의 미래는 대학생 전법에 달렸다”라는 자승 대종사의 뜻에 따라 젊은 층 포교에 진력했다.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영원한 상월결사의 이사장이신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형상은 이제 없지만 그 가르침은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면서 ‘부처님 법을 전하자’라는 대종사께서 남기신 뜻을 잇기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자승 대종사를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한 스님은 “대종사께서 늘 강조했던 대학생, 청년포교를 위해 더더욱 정진하겠다. 그것이 대종사께서 남긴 마지막 숙제를 잘 풀어가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1월 17일 오전 11시 서울 봉은사에서는 해봉당 자승 대종사 1주기 추모법회가 봉행됐다. 김민재 기자

해인총림 방장 대원 대종사, 퇴설당 입실

11월 11일 입실…“총림 화합” 당부



해인총림 제10대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가 총림 방장실인 퇴설당에 입실했다.

대원 대종사는 11월 11일 해인총림 사부대중의 축하 속에 퇴설당에 입실하며, 총림 화합을 대중에게 당부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해인총림 동당 세민 대종사, 전계대화상 무관 대종사,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장 학성 스님,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 등이 참석했다.

대원 대종사는 대적광전, 법보전, 독성각, 대비로전, 조사전 등 경내 전각들을 참배하고 퇴설당으로 걸음을 옮겼다. 총림 대중스님들의 삼배를 받고 퇴설당에 입실한 대원 대종사는 화합과 정진을 총림 대중에게 당부하고 “앞으로 총림대중들이 잘 화합해 해인총림이 세계 만방에 빛날 수 있도록 수행정진에 매진해달라”고 강조했다.

대원 대종사는 지난 9월 30일 열린 해인총림 산중총회에서 방장 후보로 추천됐으며, 11월 5일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해인총림 방장으로 추대됐다. 신중일 기자

“십선계를 능히 가지고 지키겠나이다”

진각종, 수계관정불사 봉행
진언행자 75명 새롭게 탄생



진언행자 75명이 보살십선계를 받고 신교도로 새롭게 태어났다.

진각종(통리원장 능원 정사)은 11월 12일 서울 탑주심인당에 삼매야계단을 개설하고 ‘진기 78(2024)년 보살십선계 수계관정불사’를 봉행했다. 마민녕(현호·탑주심인당) 신교도 등 75명의 수계자들이 보살십선계를 수지했다.〈사진〉

교무부장 수각 정사의 습의불사에 이어 봉행된 수계관정불사에서 수계자들은 갈마아사리 능원 정사로부터 금강선을, 전계아사리 관천 정사로부터 금강수를, 교수아사리 정법 정사로부터 계첩을 받고 십선계를 지킬 것을 다짐했다.

갈마아사리 능원 정사(통리원장)는 설계단문을 통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은 믿음을 일으키는 자 반드시 먼저 계를 가지지 않으면 일체의 선한 공덕을 얻지 못하며 청정한 계로서 몸과 마음을 지키면 지혜를 얻어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거듭 설하셨다”며 “부처님의 인연을 만나 모든 진언행자들이 환희하여 계를 받아 이를 복전으로 삼고 무량한 공덕 받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교수아사리 정법 정사(교육원장)는 계상성취찬탄을 통해 “계를 받았으니 법보를 만나 부처님의 품속에서 사는 것과 같다. 마땅히 조심하고 가져라”면서 “계를 가지고 지키는 공덕은 더욱 무량하니 여기서 일어나는 공덕을 부모와 조상과 사대은혜와 법계 중생에게 회향하라”고 전했다.

전계아사리 관천 정사(인의회 의원)는 법어를 통해 “진언행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청정계를 받으니 계행은 능히 보리의 근본을 열도다. 금생에 변함없이 마음에 새겨 항상 선지식의 친근함을 얻어 부처님과 법과 그 스승을 깊이 믿으니 능히 모든 공덕 구족하리로다”고 말했다.

수계자를 대표해 마민녕(현호) 신교도는 입지게에서 “이제 계를 설해 받았으니 금생으로부터 성불에 이르기까지 견고히 가지고 지키겠다”며 “차라리 신명을 버릴지언정 물러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불사에서는 제3회 통리원장배 파크골프대회 개인전 1위를 차지한 세종심인당 신교도 안상동(인정) 각자가 수계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인정 각자는 “세종심인당 금강회를 통해 신행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하면서 마음을 내게 됐다”면서 “불명을 받으니 진정한 진언행자가 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중일 기자

大韓佛教曹溪宗 與山堂 慧炬大宗師

영결식 봉행에 대한 감사의 인사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11월 4일 입적하신 與山堂 慧炬大宗師의 영결 · 다비식을 11월 8일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먼 길에 직접 찾아와 스님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신 대중스님과 제방의 스님들 그리고 사부대중께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 올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수행정진하겠습니다.

與山堂 慧炬大宗師 追慕齋 案內

· 초재	불기2568년(2024)	11월 10일	10시	탄허기념불교박물관	02-445-8486
· 2 재	불기2568년(2024)	11월 17일	10시	금강선원	02-445-8484
· 3 재	불기2568년(2024)	11월 24일	10시	탄허기념불교박물관	02-445-8486
· 4 재	불기2568년(2024)	12월 1일	10시	금강선원	02-445-8484
· 5 재	불기2568년(2024)	12월 8일	10시30분	광명선원	043-877-5000
· 6 재	불기2568년(2024)	12월 15일	10시	금강선원	02-445-8484
· 7 재	불기2568년(2024)	12월 22일	10시	제4교구본사 월정사	033-339-6800

大韓佛教曹溪宗 第4教區本寺 葬儀委員會 · 門徒一同